

## GS칼텍스, 등유식별제 혼합 경유 회수

GS칼텍스는 4월말 전남 여수공장에서 생산한 초저유황 경유제품 일부에 등유식별제를 실수로 첨가한 것을 검사과정을 통해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회수 조치했다고 5월10일 발표했다.

실수로 생산된 경유는 모두 4만kl 가량으로, 주유소 등을 통한 시중유통 전에 회수한 양은 3만kl 가량에 그쳐 1만kl 정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등유식별제는 주유소 등에서 고가의 경유와 값싼 등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제품으로 경유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없다고 밝히고, 유통단계에서 유사 석유제품으로 오인돼 주유소 등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긴급 수거한 것이라고 명명했다.

<화학저널 2007/05/11>